



“농가 스스로의 의식개선 통해 경쟁력 강화해야”

김동환 회장 기자간담회 통해
미국 양돈산업 시찰 소감 밝혀

“전체 인구중 농민이 2%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그 어느 국가 보다도 농업우대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지난 6월 18일 협회 회장실에서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일간 미국 양돈산업을 방문하고 돌아온 소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미국 농민들은 자기 경작지에 액비 살포시 3년마다 에이커당 수확량, 성분검사, 토양 검사, 곡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질소 성분 등을 조정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미국 양돈산업은 첫째 웰빙시대에 맞는 돼지고기 인식개선, 둘째 돈육사업의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 셋째 산업내 인력자원 개발육성, 넷째 이윤창출을 통한 경쟁력있는 산업기반 조성, 다섯째 다변화된 수출시장의 확보 등을 당면과제로 삼고 경쟁력강화를 부단히 노력중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주하지 않는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신선육 생산, 경쟁력 충분

이에 우리 양돈농가들이 한·미 FTA를 맞아 미

국 농민들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의 의식구조 개선과 함께, 소모성질환 개선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우리 양돈산업도 미국과 생산비 부문에서의 경쟁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산·가공·유통·소비까지 HACCP 적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돈육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면 우리 양돈산업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의견수렴기구를 통해 경쟁력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산 돼지고기는 믿을만하다는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동시에 질병에 강하고, 한국 풍토에 맞는 맛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한국형 종돈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미국의 농업중시 정책을 설명하고 미국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보조금, 양돈관련 세제의 탄력적 지원, 종자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직·간접 지원시스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들과 경쟁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체계적인 산업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돈**